

“새끼 구하려다” 코끼리 떼죽음

태국 중부의 한 국립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현장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새끼를 구하려고 분투하는 부부 코끼리의 모습도 목격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6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전 태국 중부 카오야이 국립공원 내 해우 나락 폭포 아래에서 코끼리 6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다.

공원 관리들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폭포 옆 도로를 막고 있던 코끼리 무리를 숲으로 돌려 보내던 중 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울음소리는 코끼리들이 총 3단으로 이뤄진 높이 150m의 계단형 폭포인 해우 나락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난 것으로 보인다.

세 시간 뒤 공원 측은 폭포 중간 지점의 못에서 생후 3살로 추정되는 어린 코끼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연합뉴스

생일 서프라이즈에 놀라 총 쏘

62세 생일을 앞둔 미국인 장인을 놀래주려고 한밤중에 장인 집 문을 두드린 뒤, 마당 담 밑에서 뛰어나오던 노르웨이인 30대 사위 장인이 총에 맞아 숨졌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께 플로리다주(州) 산타로사 카운티 걸프 브리즈 지역에 있는 리처드 데니스 씨(61)의 집 뒷문을 누군가 세계 두들겼다.

권총을 꺼내 들고 뒷문 현관을 나선 데니스는 마당 안 담 밑에서 갑작스레 누가 뛰쳐나오자 방어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에 맞은 남성은 데니스의 노르웨이인 사위 크리스토퍼 베르겐(37)으로 확인됐다.

장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베르겐은 ‘생일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터키서 김밥·김치볶음밥 인기

케밥의 나라 터키에서도 특유의 매콤한 케밥으로 유명한 아다나에서 한국의 김밥과 김치볶음밥이 터키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주터키한국문화원은 4일(현지시간)부터 6일까지 아다나 주(州)의 초청으로 아다나 메르케지 공원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 음식 축제에 주빈국으로 참여했다.

메르케지 공원 중앙에 자리잡은 한국 부스는 축제 첫날인 4일부터 한국 음식을 맛보려는 현지인들로 북적였다.

한국 부스가 첫날 준비한 메뉴는 김밥이었다. 물러든 손님들 덕에 미리 말아둔 김밥이 순식간에 소진돼 밥을 하는 동안 현지인들이 길게 줄을 서 김밥을 기다렸다.

김밥과 함께 터키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메뉴는 김치볶음밥이었다. /연합뉴스

북미 비핵화 해법 간극 못 좁혀 결렬

북 “미, 빈손으로”·미 “창의적 아이디어 가져가” 하노이 이은 ‘스톡홀름 노딜’로 협상 중대 기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결렬됐다.

북미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협상이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또다시 ‘노딜’로 귀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북미 모두 협상 재개 여지를 남기긴 했으나 회담 결렬 후 미국 측의 ‘빈손 제안’ 여부 등을 놓고 진실게임을 방불케 하는 책임 공방을 벌이며 포스트 ‘스톡

홀름 노딜’ 국면의 험로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연말 시한을 다시 제시,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며 ‘스톡홀름 노딜’의 충격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기대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의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했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며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ICBM·핵실험 중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

자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 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잘못된 접근으로 초래된 조미 대화의 교착상태를 깨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대사는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15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했다”며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

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야 가능하다”고 체제안전 보장 및 제재 완화 요구를 거듭 확인했다.

다만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 대사의 성명 발표 후 3시간여만에 이뤄진 성명 발표에서 김 대사의 결렬 선언과 관련,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며 “북한 대표단에서 나온 앞선 논평은 오늘 8시간 반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북측의 책임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연합뉴스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일단의 교교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금융중심지인 센트럴 지역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복면금지법에도 마스크 쓴 시위대 이틀째 ‘거리로’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마스크를 쓴 채 이틀째 거리로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홍콩섬 코즈웨이베에서 센트럴까지 1천명 넘는 사람들이 행진했다고 보도했다.

침사추이의 스타페리 부두 밖에서 인간 띠를 이룬 수십명의 시위대는 캔트로드를 따라 걸어가면서 “나는 마스크를 쓸 권리가 있다”는 구호를 외쳤으며 이들의 수는 몽콕을 향하면서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광둥성 선전과 인접한 북부 신계의 성수이에서는 과격한 수십명이 중국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을 비롯해 그들이

진중국으로 간주한 상점을 파괴했다.

이날 인터넷에는 코즈웨이베와 침사추이, 사틴, 성수이, 타이포 등 20여 지역의 시위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전날 밤 복면 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 속에 홍콩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하루 500만명을 수송하는 MTR은 완전히 중단됐으며 이날까지도 운영이 재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일본 소녀상 전시 8일 이후 재개될 듯

위안부 피해자를 표현한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됐다는 이유로 전시가 중단됐던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2019’ 기획전인 ‘표현의 부자유전·그후’가 오는 8일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일 공식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국제예술제는 오는 14일 끝난다. 이에 따라 기획전이 8일 재개되면 1주일간 일반 관람객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만날 수 있게 된다.

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치 트리엔날레와 기획전을 각각 담당하는 두 실행위원회는 6-8일 중 재개를 전제로

기존 전시내용을 유지하면서 관람객 입장 방법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6일 재개는 어렵고, 7일은 휴관일여서 일러야 8일 이후 재개가 유력한 상황이다.

아이치현이 설치한 기획전 재개 검토 위원회를 이끄는 야마나시 도시오 국립국제미술관장은 5일 나고야에서 열린 관련 포럼에서 ▲원칙적으로 원래 형태의 전시 재개 ▲경비·전화환의 대책으로 신청 방식의 가이드 투어 진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기업인 최고 걱정은 실업난”

세계경제포럼 설문

한국에서는 실업난을 가장 많이 걱정하지만 일본에서는 지진, 미국에서는 해킹을 더 두려워했다. 전 세계를 따질 때 기업 경영인들의 가장 많은 고민은 국가가 부도 위험에 빠지는 재정위기에 있다고 나타났다.

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41개국 1만2,879명의 사업가를 상대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별로 향후 10년 내 해당 국가에서 사업 활동의 최대 리스크 5가지를 묻는 말에 한국은 ‘실업 및 불안전고용’을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기상이변과 인간이 만든 환경재해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사이버 공격과 국가 간 갈등은 공동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실업을 최대 리스크로 꼽은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브루나이뿐이었다. /연합뉴스

M 전남매일 학교폭력예방 연중캠페인

너 참 권 있다

자기 빛깔로 사랑스런 아이 향꾸네 정을 나누는 권 있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배려할 줄 아는 민주시민, 전남학생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이 응원합니다.

“너 참 권 있다.”

권 있다 : 불수록 정이 들고 매력적인 인물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
향꾸네 : ‘함께의 전라도 방언’